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상속은 '편의 전쟁'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

권내현 지음

때는 16세기 조선의 어느 양반가. 장남이었던 유유가 가출을 하고 부친 유예원이 사망한다. 동생 유연이 형 대신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형의 소식을 전해지는데, 자형 이지는 해주에 사는 채응규가 유유라고 알려준다. 얼마 후 나타난 유유에게는 춘수라는 첩과 정백이라는 아들이 딸려 있었다.

문제는 그동안 얼굴과 몸매가 달라진 유유의 진위 여부였다. 동생 유연은 돌아온 형이 진짜 형인지 믿을 수 없었던 데 반해 자형은 유유가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사실 재산 상속과 연관된 예민한 문제였다. 유유의 부인 백씨 부인과 정백을 자신의 아들로 거둬들인다. 그러나 얼마 후 재판을 받던 채응규가 실종되면서, 유연은 형 살인혐의로 의금부로 압송된다. 유연은 고문과 자백 속에 능지처참의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

조선시대나 오늘날에도 상속문제는 관심거리다. 당대의 육판과 갈등, 관습과 제도가 응축돼 있는 부분이 바로 상속이다.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은 오늘날의 상속 갈등을 조선 상속제 변화와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권내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그동안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등의 책을 통해 역사 이면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알려왔다.

앞서 소개된 유유 사건은 이항복이 '유연전'이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권득기의 '이생송원록' 등을 비롯해 많은 관료와 지식인의 책에도 남아 있다.

권내현 교수는 이번 책을 통해 16세기 일상과 육판, 관행과 제도, 사법과 정치 현실까지 아우른다. 책을 더 읽다 보면 소설보다 더 극적인 실화와 만난다.

동생 유연이 처형된 지 16년이 흐른 후 진짜 유유가 나타난다.

유연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가짜 유유 행세를 했던 채응규는 압송도중 자결하고, 채응규의 첩이었던 춘수는 이지의 사주를 자백한다. 결국 이지 또한 심문과정에서 죽음을 맞는다. 진짜 유유는 부친의 상장례에 참여하지 않은 죄목으로 100대 장형과 강제노역인 도형(徒刑)을 채우고 2년 만에 죽었다.

저자는 이 사건을 16세기 상속의 관습과 제도가 충돌한

지점으로 본다. 당시 관습은 장남이 자식 없이 죽으면 부인이 총부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가계 계승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른바 '총부권'이었다. 이와 달리 법전 규정에는 그 권리를 장남의 남동생에게 부여하는 '형방제급'이 있었다. 일종의 관습과 제도의 충돌인데, 이 시기는 가계 계승자에게 상속 몫이 늘어가는 추세였다.

사람들은 처음에 유연이 '적통을 빼앗으려' 형을 죽였다고 봤다. 어찌됐든 부인 백씨가 채응규 진위를 가리지 않고 아들 정백까지 키운 것은 상속과 가계계승에서 불안한 자신의 처지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유 사건의 배경은 17세기 이후에는 낯선 일이었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양자를 들여 가계를 이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유유, 유연, 부인 백씨는 가계 계승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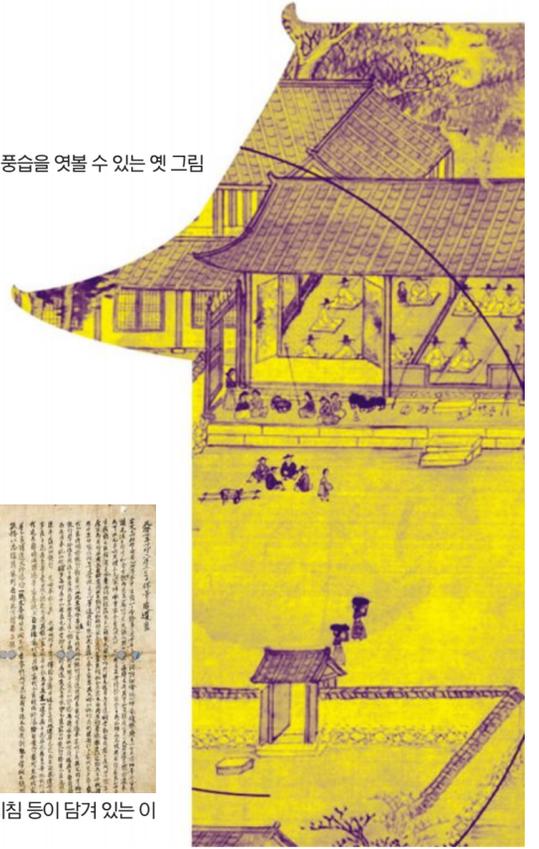
사실 장자 우대 상속은 상속 재산의 축소(경제력)와 종법(이념)의 확산 두 가지와 맞물려 있었다. 장남을 우대하는 관행은 근대 이후에도 오래 지속됐다. 물론 차남들도 일정 부분 상속을 받고 장남 주변에 머물러 살았다. 저자는 이와 같은 적장자 우대 상속은 장남에 의한 가계 계승을 보장하면서 나머지 아들들의 경제적 몰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별 가계의 성장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약화로 다시 균분상속으로 전환됐다. 상속의 갈등을 겪는 집안도 있지만 장남 우대 상속은 조만간 역사 뒤안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유럽이 장자 상속제로 인해 부가 집중되고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견해는 유럽 중심주의라 일축한다. 유럽 귀족은 11~12세기를 거치며 장자 상속제를 채택했는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제도였다.

<너머복스>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시대의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옛 그림



재산 처리 지침 등이 담겨 있는 이 함의 유언

우리가 쓴 것

조남주 지음

조남주 작가하면 '82년생 김지영'을 떠올린다. 공전의 베스트셀러인 이 작품은 현재까지 27개국 25개 언어로 번역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여성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워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 문학의 전기와 후기를 나눌 만큼 영향을 미쳤다.

조 작가가 펴낸 소설집 '우리가 쓴 것'은 다양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겪는 삶을 그리고 있다. 얼핏 작가의 첫 작품 '82년생 김지영'을 떠올릴 법한데, 한편으로 전작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 있다. 작품집에서는 '여자아이의 자라사', '현남오빠에게' 등 모두 8편의 소설을 만날 수 있다. 소재 또한 다양하다. 가부장제, 여성노인, 가스라이팅 등 여성 문제 등 여성과 관련해 화두로 부상했던 내용들이다. 2012년 발표한 단편 '미스 김은 알고 있다'부터 10년 후인 2020년 '첫사랑 2020'에 이르기까지 작점은 간극이 있다.

'매화나무 아래'와 '오로라의 밤'은 자매애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두 작품 모두 노년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펼쳐진다. 전자는 요양원에서 여성을 보내는 큰언니를 바라보는 '나'가 언젠고 다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그리운 둘째 언니는 죽고 없는 상태다. 후자의 작품은 남편의 죽음 이후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며느리의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82년생 김지영'의 후일담 소설인 '오기'는 지난 시간 쓴 것들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거기에는 쓰지 않은 것과 쓰지 못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어쩌면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보통명사 내지는 고유명사가 되었듯이 이번의 작품 속 이름들은 또다른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불려지길 기대하는지 모른다.

<민음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라디오와 매체

발터 벤야민 지음, 고지현 편역

발터 벤야민(1892~1940)은 유대계 독일인으로 문학평론가이며 철학자이다. 우리나라 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학이론가 중의 한명이다. 벤야민은 생전에 라디오 방송과 인연이 있었는데, 교수 자격취득에 실패한 지점에 활동을 펼쳤다.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작가, 강연자, 낭독자, 비평가, 대담 진행자, 예능인으로 활약했다.

벤야민의 라디오매체에 대한 국내 최초 연구서 '라디오와 매체'가 발간됐다. 기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벤야민은 생계를 위해, 또는 불우한 시기를 헤쳐가는 방편으로 라디오 작가로 활동하며 원고를 썼다. 강연, 문학비평, 토크, 쿼즈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으며 기술매체 또한 사진, 회화, 영화, 신문, 라디오 등에 걸쳐 있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라디오와 통속성'은 벤야민이 라디오방송에 뛰어들 후 소리 대중매체와 관련해 이론적 성찰을 전개한 글을 모았다. 제2장 '언어, 반성, 문자, 이미지'는 매체를 이른바 '표현형식'으로 바라보는 벤야민의 철학적 면모를 모았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책, 출판, 신문', '책과 예로서', 전자는 새 매체 출현으로 야기되는 공공성의 구조 변동을 가능할 수 있으며 후자는 책의 상품적 성격과 맞물린 섹슈얼리티를 다루고 있다.

전시 가치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국면을 조명한 제5장 '전시공간, 광고'는 '화보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 '막거리의 연시' 등의 글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회화, 그래픽, 전화, 사진'에는 개별적 시각·소리 매체에 대한 단상이 담겨 있다.



<현실문화>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개

김금숙 지음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강아지를 가족 구성원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버려지는 유기견 수만 한 해에 10만 마리고, 안락사를 당하는 개들도 3만 마리가 넘는다. 게다가 학대를 받거나 한평생 짝은 목줄에 묶여 사는 개, 길에 떠돌아다니다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고통 속에 죽는 동물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시대적, 역사적 아픔을 겪으며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해온 김금숙 만화가가 이번에는 인간과 개의 교감, 반려동물과 그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사랑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픽노블로 그려냈다. 제목은 '개'. 저자는 진실에 가깝게 쓰고 그려야 현실감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개와 함께 찍은 수천 장의 사진과 일기를 바탕으로 작업했다.

책은 인간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팻 솥 17번 방에 살고 있던 강아지 당근이를 데려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사랑스러운 당근이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 집 앞에 버려두고 간 어린 강아지 감자를 집에 들고, 인간보다 더 인간을 신뢰하는 개의 교감을 또 다른 기쁨을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함께 사는 훈도 개를 키우며 우울을 치유한다.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동네에 살던 개들이 어김없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개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자는 작가노트에서 "반려동물은 히로에락을 느끼고 인간과 소통하며 교감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인간이기에 시작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인간이기에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전한다.

<마음의숲>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